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5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5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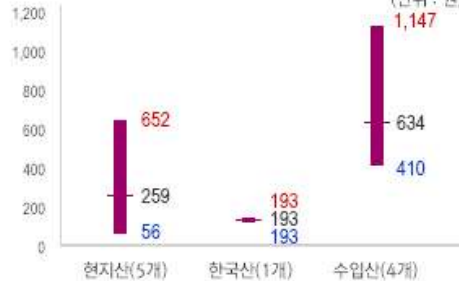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3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대만 달러=37.4원

1~5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1.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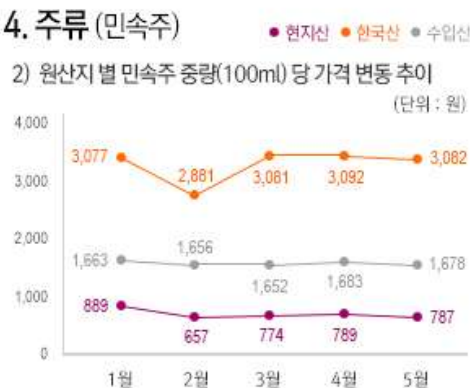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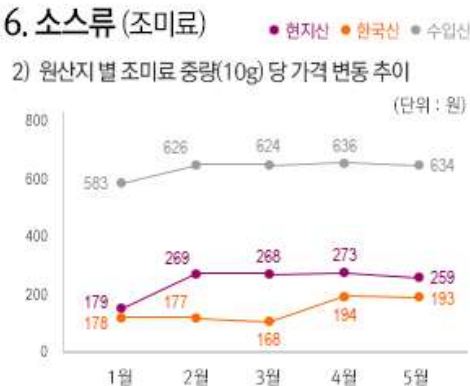
4. 주류 (민속주)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3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대만 달러=37.4원

면류

수요 증가 ▲ “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판매량 증가 ”

대만에서 소스, 음료, 라면 등 한국 가공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HANLIEN(韓聯企業有限公司) 회사의 Ms. Xie에 따르면, 근래 삼양식품사의 불닭볶음면의 수요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 소비자들은 라면 본연의 맛보다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의 라면을 선호하고 있어 5월에 해당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에서는 불닭볶음면 취급 전 신라면이 판매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최근 불거진 대만의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신라면 보다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 ~ 2개월 내 동 제품을 재수입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시리즈 제품인 불닭볶음탕면과 치즈 불닭볶음면도 추가적으로 수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닭볶음면]

신선식품

수요 증가 ▲ “ 대만, 30대 소비자들이 신선인삼 선호 ”

1972년 설립하여 주로 정관장社 인삼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King Of Ginseng(參大王)의 담당자 Mr. Cheng은 5월에 신선인삼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선인삼의 주요 구매층은 남녀 구분 없이 30대이며, 한국의 신선인삼이 다른 국가 제품보다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30대 소비자들은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어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가가 높은 인삼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 한국산 신선인삼의 판매량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선 인삼]

스낵류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촉행사 진행 ”

대만에서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고 있는 KOREA SHOP CO., LTD.의 대표자 Ms. Wei Shin Hui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선영식품社 초코스틱 제품이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는 초코스틱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맛으로 기대 수요량이 높았지만, 실제로 대만 내 해당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판매율 증대를 위해 최근 가격을 소폭 하락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만족할만한 판매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초코스틱]

주류

수요 증가 ▲ “ 초여름인 5월에는 시원한 맥주를 선호 ”

대만에서 주류를 전문적으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 PAICHI(百棋貿易有限公司) 회사의 담당자 Mr. Song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산 맥주가 최근 대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햇빛이 점차 강해지는 5월은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사에서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길거리 판촉행사를 진행한 결과, 도수가 높고 무거운 병 제품보다 부담이 적고 청량감 있는 캔 맥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로 한국 맥주의 판매량은 급증했으며, 원래 한국 주류 중 소주와 매화수만 선호했던 기존 소비자들이 한국 맥주에 관심을 가지며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맥주]

기타 가공식품

가격 상승 ▲ “ 가격 상승에도 변함없는 한국 김치의 판매량 ”

한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수입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LiiCheng(立晟彩珍有限公司) 회사의 담당자 Ms. Wu는 한국 김치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는 한국 식품 중 라면, 조미김, 김치, 스낵류 제품을 위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여러 제품들이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 김치의 가격은 작년 150 대만 달러였지만 최근 20%의 가격 인상률을 보이며 180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하지만 한국산 김치의 경우 대만 소비자들의 선호식품 중 하나이므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김치]